

굽타의 진리 수정론

송 하 석

[주 제] 진리와 논리

[주제어] 의미론적 역설, 거짓말쟁이 역설, 진리의 비일관성론, 타르스키, 굽타

[요약문]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다음 두 가지로 주어진다.

그 역설을 일으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 자기지시적이기 때문에 역설이 발생하므로 자기지시적 문장을 금함으로써 그 역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모든 문장을 참이나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진리값에 대한 배중률(*principle of bivalence*)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역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제3의 진리값을 갖는 문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과 달리 진리 개념을 비일관적인 개념으로 보고 진리 술어와 그 외의 술어의 용법상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굽타의 “진리 수정론”이다. 굽타의 진리 수정론에 따르면, 진리 술어 외의 술어들은 그 외연이 고정적으로 산출되고 그 과정은 적용 규칙(*rule of application*)에 의해서 설명되지만 진리 술어는 순환적 정의처럼 고정된 외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가설적 외연만 만들어 낼 뿐이다. 이렇게 진리술어의 가정적 외연을 산출해내는 과정은 수정규칙(*rule of revision*)에 의해서 설명된다. 요컨대 진리 수정론은 순환적 개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론적 구조틀이 있다는 것과 진리개념이 바로 그러한 의미구조틀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순환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굽타는 그러한 의미구조틀을 일정한 규칙을 갖는 함수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진리개념을 일관적인 것으로 보고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해야 할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진리의 일관성론과 달리 굽타의 진리 수정론은 진리술어 자체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그 술어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것이지 피해야 할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진리 수정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반론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다. 또한 진리 수정론을 통해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설명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진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보려고 시도했다.

1. 머리말

고전적 진리론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금세기에 타르스키(A. Tarski)가 주장한 의미론적 진리론(The semantic theory of truth)은 모든 타당한 진리 이론이 만족해야 할 최소 조건으로 T-문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떤 특정 언어(L)에 대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T-문장은 모든 진리 술어에 관한 정의가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해야 할 적합조건(adequacy condition)이다. 그러나 타르스키의 진리론이 제시하는 T-문장은 그 자체가 대상언어와 메타언어로 구성되는데, 그러한 언어의 계층화가 항상 명백하지 않다는 크립케(S. Kripke)의 비판과 거짓말쟁이 역설과 관련하여 제안된 의미론적으로 열린 언어(semantically open language)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그리고 수많은 계층의 진리술어 -true1, true2, true3, ... -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반직관적이라는 비판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함으로써 그 이론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¹⁾

이러한 타르스키의 진리론에 대한 대안으로 크립케는 모든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는 진리값에 대한 배중률(principle of bivalence)을 포기하고 참과 거짓의 외연의 한계를 설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리하여 그는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제의 진리값이 결정되는 고정점(fixed point)을 귀납적으로 구성하여, 그

1) A. Tarski, "The Semantic Conception of Truth",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 (1944), 341-376쪽을 보라.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은 송하석 "진리, 일관된 개념인가: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타르스키와 키하라의 설명" (『여훈근 교수 회갑 기념 논문』, 1996)을 참조할 것.

고정점 중에서 최소 고정점에서 진리값이 결정되는 명제들을 근거 있는(grounded) 명제이고, 그렇지 못한 명제는 근거 없는(ungrounded) 명제라고 한다. 이렇게 근거 없는 명제로 분류된 명제는 진리값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고정점에서도 진리값이 결정되지 않는 명제를 역설적 문장이라고 한다.²⁾ 그러나 크립케의 논의도 그것이 명제의 진리값에 관한 배중률을 포기하는 것인 한, 여전히 강화된 거짓말쟁이 역설(strengthened liar paradox)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난점이 있다.³⁾

이와는 달리 키하라(C. Chihara)는 지금까지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진리 술어를 논리적으로 무모순적인 일관된(consistent)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리술어는 일관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술어가 일상언어에서 사용되는 한, 역설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키하라는 일상언어에서 역설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진단상의(diagnostic) 문제와 그 역설을 어떻게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치료상의(preventative) 문제를 구별하고, 그 역설은 진리술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 역설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치료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상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그에 따르면 그러한 역설이

2) S. Kripke, "Outline of A Theory of Truth", *The Journal of Philosophy* 72, (1975) 690-716쪽 참조. 이에 대한 우리말 논문으로는 김영정 교수의 "크립케의 진리론"(『철학』 29, 1988)이 있다.

3) 강화된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철학자는 반 프라센이다. 그의 B. Van Fraassen, "Proposition, Implication, and Self-reference", *Journal of Philosophy* 65 (1968) 136-152쪽 참조.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송하석의 위의 논문 참조할 것.

발생할 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 역설이 발생하는가에 주목하여할 뿐, 그 역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키하라의 진리 비일관성론(The inconsistency view of truth)도 문제점을 갖는다. 그가 제시한 진리 술어에 관한 설명인 진리술어 원칙은 단순히 역설적 문장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의미 없는 문장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타르스키 이후 진행된 진리에 관한 논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굽타(A. Gupta)는 그의 논문 “진리와 역설 (Truth and Paradox)”과 벨납(N. Belnap)과의 공저인 『진리 수정론 *The Revision Theory of Truth*』을 통해서 진리론과 거짓말쟁이 역설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굽타와 벨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T-문장들은 분석적으로 옳으며 그 T-문장들은 진리 술어의 의미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진리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직관이다. 그러나 거짓말쟁이 역설은 그러한 기본적인 직관이 비정합적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 진리론의 중심된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 기본적인 직관을 손상하지 않고 역설을 해결하는 것이다.⁵⁾

즉 진리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직관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진리 개념이 낳을 수 있는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굽타의 진리 수정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4) C. Chihara, “The Semantic Paradoxes: A Diagnostic Investiga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88 (1979) 590-618쪽 참조. 그리고 키하라의 진리론에 대한 비판은 송하석의 위의 논문을 참조할 것.

5) A. Gupta & N. Belnap, *The Revision Theory of Truth*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3), 6쪽.

굽타의 진리론은 초한적 반복 구조(transfinite iterative construction)에 의해 얻어지는 고정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크립케적이고, 진리 술어의 확정된 외연을 부인하고 진리가 일관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키하라적이다. 그는 그의 이론을 통해서 진리술어의 사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규칙을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즉 ‘빨강다’, ‘크다’와 같은 일상적인 술어가 고정된(fixed) 외연을 만들어 내는 적용규칙(rule of application)에 의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은 참이다’는 진리술어는 그가 수정규칙(rule of revision)이라고 부르는 규칙에 의해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진리 수정론(The revision theory of truth)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 필자는 굽타의 진리 술어의 수정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거짓말쟁이 역설의 해결에 어떤 공헌을 하는가를 논의함으로써 진리 수정론을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가능한 비판들을 생각해 보고, 그 비판들로부터 그 이론을 옹호함으로써 그 이론의 의미를 평가해 볼 것이다.

2. 진리 수정론 - 진리 술어는 순환적이다

굽타는 거짓말쟁이 역설은 서술적(descriptive) 문제와 규범적(normative) 문제라는 두개의 별개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문제는 ‘…은 참이다’라는 진리 술어의 용법을 설명하고 그 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 언어에서 그 술어의 실제적 사용에서 나타나는 진

리 개념과 역설을 적절하게 설명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술어를 포함하는 문장 중에는 그 의미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통찰도 허락하지 않는 거짓말쟁이 문장과 같은 병리적 (pathological) 문장이 있는 반면, 진리 술어를 포함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종류의 문장을 구별하는 것이 간단하고 분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는 서술적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구별을 체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규범적 문제는 진리 개념이 비정합적이지 않은가, 혹은 역설을 낳는 논증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전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문제가 되는 개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대체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범적 문제는 그러한 역설을 방지하고 역설이 없는 진리 개념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⁶⁾

굽타는 규범적 문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우리가 일상적인 진리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때까지는 애매하고 불명료하기 때문에 서술적 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공한다.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 어떤 종족의 사람들이 일식을 관찰했다고

6) 굽타의 이러한 구별은 키하라의 진단상의 문제와 치료상의 문제의 구별과 유사하다. 굽타의 서술적 문제와 키하라의 진단상의 문제는 왜 역설이 발생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굽타의 규범적 문제와 키하라의 치료상의 문제는 어떻게 그 역설이 피해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두 철학자 모두 후자의 문제보다는 전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도 유사하다.

생각해 보자. 그들은 이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에 당연히 당황해 하면서 그들은 그 현상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경향은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종류의 가설들 즉 신의 분노, 악신이 태양을 삼킴 등의 가설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숙고는 일식에 대한 이해를 줄 것 같지 않다. 이해를 얻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태양과 달 그리고 다른 별의 일상적이고 익숙한 행위를 참을성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7)

요컨대 우리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나 그에 의해 발생하는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 개념이 일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진리의 일상적 개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직관은 하나의 언어에서 모든 상항(constants)의 외연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언어에서 어떤 문장이 참이고 어떤 문장이 거짓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을 형식화해서 타르스키는 의미론적으로 열린 형식 언어를 위한 진리의 정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르스키의 정의는 주어진 언어가 의미론적으로 닫힌 경우에는 진리 술어의 외연을 결정해주지 못한다. 그런데 굽타는 이 진리에 대한 기초적 직관을 의미론적으로 닫힌 언어의 문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리술어의 외연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진리 개념과 순환적 정의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그는 진리 개념의 행태(behavior)는 그것이 일상적인 경우든 비일상적인 경우든 분명히 순환적 정의가 보여주는 행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7) A. Gupta & N. Belnap의 위의 책 17쪽.

순환적 정의를 생각해 보자.

- (1) x 는 G 이다 = df x 는 F 이거나, x 는 H 이며 동시에 G 가 아니다.
 $Gx = \text{df}$ $Fx \vee (Hx \ \& \ \neg Gx)$

여기서 F 와 H 는 명료하고 잘 이해되어진 술어라고 하자. (1)은 정의항에 피정의어인 G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적인 정의이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는 부당하며 또한 그러한 정의는 엄청나게 많은 주장 특히 불합리한 주장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여기서 x 는 F 가 아니며 x 는 H 라고 가정해 보자. 즉

- (2) $\neg Fx \ \& \ Hx$

전통적인 견해가 주장하는 것처럼 (1)과 같은 순환적 정의가 어떻게 모순적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x 는 G 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1)로부터 정의항을 얻을 수 있다. 즉

- (3) $Fx \vee (Hx \ \& \ \neg Gx)$

(2)의 단순화(simplification)에 의해서 얻은 $\neg Fx$ 와 (3)으로부터 선언삼단논법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Hx \ \& \ \neg Gx)$ 를 얻게 되므로 x 는 G 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 $\neg Gx$

그리고 (2)의 단순화에 의해서 Hx 를 얻고 이를 (4)와 연언적으로

결합하면 우리는 $(Hx \ \& \ \neg Gx)$ 를 얻을 수 있다. 거기에 Fx 를 부가(addition)하면

$$(5) \ Fx \ \vee \ (Hx \ \& \ \neg Gx)$$

을 얻게 된다. (5)는 (1)의 정의항이므로, 우리는 Gx 의 순환적 정의인 (1)과 $\neg Gx$ 라는 가정으로부터 그 가정과 모순되는 Gx 를 결론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우리는 (1)과 같은 순환적 정의는 끝없는 고리처럼 계속됨을 알 수 있다. ‘a가 G이다’는 ‘a는 G가 아니다’를 낳고, 또 ‘a는 G가 아니다’는 ‘a는 G이다’를 차례로 낳는다.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거짓말쟁이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등”⁸⁾ 두 경우에서 모두 우리는 무한하게 순환하는 동일한 패턴을 보게 된다. 또한 곱타는 순환적 정의와 진리 개념 사이의 유사성은 병리적 문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순환적 정의도 어떤 범위의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G에 관한 순환적 정의인 (1)도 F이거나 H가 아닌 대상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유사성은 곱타로 하여금 거짓말쟁이 역설이 진리 정의의 순환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피정의어(definiendum)의 의미가 완전히 고정되는 정의이다. 피정의어의 의미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그 외연을 부여하는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일상

8) L. Wittgenstein, *Remark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3), 120쪽.

적인 정의는 우리에게 그 정의항(definiens)에 있는 용어의 외연이 주어지면 피정의어의 외연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순환적 정의는 피정의어가 정의항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피정의어의 의미를 고정할 수 없는 비일상적인 정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 견해는 순환적 정의를 포기하도록 권하지만, 굽타는 어떤 용어의 순환적 정의가 주어질 때 그 용어의 외연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규칙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피정의어의 외연에 관한 가설에 의해서 우리는 그 피정의어의 외연을 수정하여 결정하여 감으로써 그 용어의 외연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그 피정의어의 외연을 하나의 확실한 집합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연을 어떤 집합으로 가정하면 그 외연이 어떤 집합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다음의 약간 복잡한 순환적 정의를 생각해 보자.

$$(6) Gx =_{df} (Fx \& Hx) \vee (Fx \& \neg Hx \& Gx) \vee (\neg Fx \& Hx \& \neg Gx)$$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논의 영역 D와 술어의 외연의 집합 I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D = \{a, b, c\}$$

$$I(F) = \{a, b\} \text{ 그리고 } I(H) = \{a, c\}.$$

그리고 관련된 사실의 집합을 M이라고 하자. 여기서 G의 외연을 결정하기 위해서 G의 외연이 될 수 있는 대상의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가설을 세우자. 이 가설을 초기의 임의의 가설(initial arbitrary hypothesis)라고 한다. 이 가설에 상대적인 G의 외연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의 정의 (6)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가설은 G 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즉 Gx 는 D 에서 항상 거짓이다. Gx 가 항상 거짓이므로 (6)의 정의항의 두 번째 선언지는 항상 거짓이다. 그러므로 G 의 외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나 세 번째의 선언지를 만족하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는 첫 번째 선언지를 만족시키고 'c'는 세 번째 선언지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G 의 외연이 아무 것도 없다고 가정하면, 정의 (6)은 G 의 외연을 $\{a, c\}$ 라고 새롭게 결정해 준다. 만약 G 의 외연이 전체 영역이라는 다른 초기의 가설을 세우면, 같은 방식으로 G 의 새로운 외연은 $\{a, b\}$ 로 결정된다. 그리하여 순환적 정의 (6)은 G 에 대한 가정적 외연 X 를 입력하면 G 의 결과적인 외연의 집합인 $\delta_{D,M}(X)$ 를 출력해 내는 함수 $\delta_{D,M}$ 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만약 $b \in X$ 이고 $c \in X$ 이면, $\delta_{D,M}(X) = \{a, b\}$ 이다.

만약 $b \in X$ 이고 $c \notin X$ 이면, $\delta_{D,M}(X) = \{a, b, c\}$ 이다.

만약 $b \notin X$ 이고 $c \in X$ 이면, $\delta_{D,M}(X) = \{a\}$ 이다.

만약 $b \notin X$ 이고 $c \notin X$ 이면, $\delta_{D,M}(X) = \{a, c\}$ 이다.

위의 리스트로부터 우리는 $c \notin X$ 이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c \in \delta_{D,M}(X)$ 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초기의 가설을 세우든지 G 의 결과적 외연은 가정했던 것과는 다르다. 즉

$$X \neq \delta_{D,M}(X).$$

분명히 (6)과 같은 순환적 정의가 피정의어인 G 의 고정적인 외연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순환적 정의는 우리

에게 $\delta_{D,M}$ 과 같은 중요한 함수를 제공해 줌으로써 하나의 초기 가설에 따른 상대적 외연을 산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굽타는 순환적 정의는 피정의어에 가설적 성질을 지닌 외연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즉 그러한 정의가 피정의어의 외연을 절대적으로 결정해 주지 못하지만, 그 정의가 피정의어의 행태를 설명해 주는 함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익한 정의라고 간주하여 버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순환적 정의가 피정의어에 부여하는 의미도 우리에게 때로는 정언적(categorical)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6)의 정의에서 a 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피정의어 G 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 D 에서 a 는 G 이다. 단순히 가설적인 판단으로부터 어떻게 정언적 판단으로 전이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굽타는 함수 $\delta_{D,M}$ 을 하나의 수정 규칙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즉 그 함수를 가설적 외연 X 에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집합 $\delta_{D,M}(X)$ 은 X 보다 더 나은 G 의 외연의 후보자들의 집합이다. 이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G 에 대한 한층 나은 외연의 후보자들의 집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함수의 반복적 적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가능한 외연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자.

$$\begin{aligned}\delta_{D,M}^0(X) &= X \\ \delta_{D,M}^{n+1}(X) &= \delta_{D,M}(\delta_{D,M}^n(X)).\end{aligned}$$

정의 (6)에서 G 의 외연에 관한 초기 가설의 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면, 수정 규칙으로서의 위의 함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집합을 얻을 수 있다.

- i) $\delta_{D,M}^0(X) = \emptyset$
- ii) $\delta_{D,M}^1(X) = \{a, c\}$
- iii) $\delta_{D,M}^2(X) = \{a\}$
- iv) $\delta_{D,M}^3(X) = \{a, c\}$
- v) $\delta_{D,M}^4(X) = \{a\}$

즉 주어진 사실들인 M 과 G 의 외연이 공집합이라는 가설로부터 술어 G 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 a 는 G 이다’는 문장은 거짓이다 [i)]. 그러나 ii)에서 v)까지에서 보듯이 그 문장은 $\delta_{D,M}^n(X)$ ($n > 0$)에서는 참이다. 다시 말해서 그 문장은 초기 가설 단계에서만 거짓이고 그 이후에는 항상 참이다. 한편으로 ‘ c 는 G 이다’는 문장은 $\delta_{D,M}^0(X)$ 에서는 거짓이고, $\delta_{D,M}^1(X)$ 에서는 참이 되고, 다시 $\delta_{D,M}^2(X)$ 에서 거짓이, $\delta_{D,M}^3(X)$ 에서는 참이 된다. 이것을 일반화하여 우리는 그 문장은 $\delta_{D,M}^n(X)$ 에서 n 이 홀수이면 참이고, n 이 짝수이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G 의 외연에 속하는 집합이 $\{c\}$ 라는 가설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 c 는 G 이다’는 문장은 $\delta_{D,M}^n(X)$ 에서 n 이 짝수이면 참이고, n 이 홀수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순환적 정의는 피정의어에 대한 적용 규칙 대신 수정규칙을 제공하여 그 피정의어에 가설적 성질을 갖는 의미를 부여하는 정의이다. 그 수정규칙은 가설적 외연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외연을 주어진 순환적 정의에 적용하여 피정의어에 대한 보다 나은 외연의 후보자를 제공하고, 모든 가능한 가설에 대해서 그 규칙을 반복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련의 수정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가설적인 것에서 정언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이는

일상적인 정의의 피정의어든지, 순환적 정의처럼 비일상적인 정의의 피정의어든지 상관없이 모든 피정의어의 행태를 설명해 준다. 일상적인 정의에서는 그 규칙은 피정의어의 행태에 대해서 가설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결정된 판단을 가능케 하고, 비일상적인 경우에는 그 규칙이 피정의어의 행태를 일정하게 결정하지는 않으나 그 행태가 하나의 전형을 갖음을 보여준다.

굽타는 진리 개념이 순환적이며 그 개념은 순환적 정의와 같은 행태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타르스키는 T-문장에 대해서 “그것은 개개의 문장의 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진리개념의 부분적 정의라고 생각될 수 있다”⁹⁾고 말한다. 그런데 T-문장이 진리의 정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형식적으로 옳아야(formally correct)한다는 조건과 2)실질적으로 적합해야(materially adequate)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의 조건은 순환적 정의를 배제하지만, 타르스키가 T-문장으로 제공하는 정의는 순환적일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진리에 대한 정의항에 피정의어를 포함하는 T-문장을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진리개념은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는 ‘눈이 하얗다’는 것이 참이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참이다.

(“‘Snow is white’ is true’ is true iff ‘snow is white’ is true.)

“‘존이 말한 것은 모두 참이다’는 존이 말한 것이 모두 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참이다.

(‘Everything John says is true’ is true iff everything John says is true.)

9) A. Tarski, 앞의 글 369쪽.

진리 술어에 대한 정의로서 위와 같은 T-문장은 분명히 정의항에 ‘참이다’는 피정의어를 포함하는 순환적 정의이다. 지금까지의 진리론은 1)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진리개념의 정의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굽타는 1)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순환적 정의도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진리개념의 정의로서 1)의 조건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탈스키의 진리정의는 2)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 조건의 충족만으로도 진리술어의 외연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순환적 정의의 경우에서처럼 정의항을 평가하여 진리술어의 외연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 술어에 대한 가설적 외연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가설이 주어지면 T-문장들은 각 문장에 대한 그 술어에 대한 수정된 외연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그 수정규칙을 굽타는 τM 이라는 함수로 표시한다. 즉 임의의 문장 집합 U 에 대해서 진리술어의 가설적 외연이 주어지면 그 함수는 그 조건하에서 참으로 판명되는 -진리술어의 외연으로 판명되는- 새로운 문장의 집합 V 를 산출해 낸다. V 는 U 보다 진리술어의 외연으로서 나은 후보자이다. 진리값이 결정될 수 있는 모든 명제의 진리값이 결정될 때까지 그 함수는 거듭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때마다 새롭게 수정된 보다 나은 진리술어의 외연의 집합을 제공할 것이다.

매우 간단한 모델로 그 수정 규칙인 함수 τM 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차 언어(first-order language) L 이 ‘…아니다(not)’, ‘그리고(and)’, ‘혹은(or)’, ‘…이면, …이다(if -then)’라는 논리적 연결사와 ‘모든(every)’, ‘약간의(some)’라는 양화사 그리고 ‘…이다(is)’라는 계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L 은 ‘참이다(true)’라는 술어 외에 다음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름: 눈, 존 그리고 문장을 지시하기 위한 인용부호적 이름
(quotational name)

일항 술어: 하얗다

이항 술어: 말하다.

논의 영역 D 가 {눈, 존}이라는 집합과 L 의 문장집합과의 합집합 $[D = \{\text{눈, 존}\} \cup \{x/ x \text{는 } L \text{의 문장}\}]$ 인 상황을 M 이라고 하자. 그리고 L 의 임의의 문장집합을 U 라고 하고, 위의 술어의 외연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자.

$I(\text{하얗다}) = \{\text{눈}\}$

$I(\text{말하다}) = \{\langle \text{존, 눈은 하얗다} \rangle, \langle \text{존,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 \rangle, \langle \text{존, 존이 말한 것의 일부는 참이다} \rangle\}$

그리고 처음의 임의의 문장집합 U 에서 '참이다'의 외연은 없다고 하자. $[I(\text{참이다}) = \emptyset]$ 이와 같은 모델의 언어에 수정 규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보다 나은 다음과 같은 진리 술어의 외연의 후보자를 얻을 수 있다.

(㉑) 눈은 하얗다.

(㉒) '눈은 하얗다'는 참이 아니다.

(㉓)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는 참이 아니다.

(㉔) 모든 것은 참이 아니다.

(㉕) 존이 말한 것은 모두 참이 아니다.

위와 같이 수정 규칙을 한 번 사용하여 얻은 수정된 문장집합을 V_1 이라고 하자. 그런데 V_1 에는 보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 즉 하나의 문장(Ga)이 그 집합 V_1 에 속하면 그 문장이 참이라고 말하는 문장의 부정($\sim T(Ga)$)도 또한 V_1 에 속한다. 그러므로 V_1 에 있는 문장들은 완전한 진리술어의 외연일 수 없고 따라서 수정규

칙을 사용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tau M(V_1)$ 을 V_2 라고 하자. 그러면 V_2 는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와 같은 이단계 문장(second-level sentences)에 대해 옳은 외연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V_2 에서는 (7)과 같은 문장을 진리술어의 외연으로 보존하면서 이차단계의 문장 중에서 (L)과 같은 문장은 진리술어의 외연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나 V_2 는 삼차단계의 문장, 즉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는 참이다’와 같은 문장에 대한 올바른 외연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수정규칙을 다시 한 번 사용하여 V_3 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수정규칙의 거듭된 사용이 보다 나은 외연의 후보자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유한한 수의 거듭 적용은 여전히 수정을 요구하는 문장의 집합을 제공할 뿐인 것처럼 보인다. 즉 그 규칙을 초한적으로(transfinitely) 거듭 적용해야만 하는 것 같다. 도대체 이런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굽타는 수정 규칙이 갖는 두 가지 속성을 설명함으로써 그 규칙의 유한한 적용만으로도 진리술어의 외연이 고정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첫 번째의 속성은 고정성(stability)이다. 고정성이라 함은 규칙의 적용에 의해서 얻어진 문장 중에서 옳은 외연의 후보자들은 그 이후의 적용에 의해서도 옳은 것으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눈은 하얗다’는 문장은 규칙의 처음 적용부터 매 적용에서 외연의 후보로 나타난다. 즉

$$\text{‘눈은 하얗다’} \in V_n \ (n \geq 1).$$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는 문장은 V_2 에 속하고 그 이후의 모든 적용에서 옳은 외연으로 보존된다. 즉

$$\text{“‘눈은 하얗다’는 참이다’} \in V_n \ (n \geq 2).$$

요컨대 우리는 궁극적으로 수정 규칙의 적용으로 얻게 된 문장의 집합에서 차후에 보존되는 문장과 그렇지 못한 문장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규칙의 고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은 수렴성(convergence)이다. 수렴성이란 어떤 문장의 지위는 우리가 어떤 초기 가설로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초기의 임의 문장집합 U 는 전혀 수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른 초기의 문장 집합 U' 으로 수정 과정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U' 에서 ‘참이다’의 외연을 논의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문장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tau_M(U') = V'_1 = \{\text{눈은 하얗다,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 '눈은 하얗지 않다'는 참이다 모든 것은 참이다, 존이 말한 모든 것은 참이다,}\}$$

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V_1 과 V'_1 모두 ‘눈은 하얗다’는 문장과 진리 술어가 나타나지 않은 문장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러한 문장들은 V_n 과 V'_n ($n \geq 1$)에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보는 바와 같이 V'_1 도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수정 규칙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얻어진 V'_2 는 “‘눈은 하얗지 않다’는 참이다”는 배제하고,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와 같이 V_2 가 포함하는 문장만을 포함한다. 결국 수정 규칙을 두 번 적용함으로써 “‘눈은 하얗다’는 참이다”는 문장은 초기 가설적 집합에 상관없이 항상 진리 술어의 외연으로 고정된다. 즉 초기 가설의 임의성은 수정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정 규칙을 초한적으로 계속 적용하지 않고 유한한 적용만

으로 얻게 되는 진리 술어의 외연의 후보자를 검토해 봄으로써 그 외연에서 어떤 규칙적인 행태를 발견하게 되고 그 규칙적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귀납적으로 진리술어의 외연의 일정한 행태를 찾아내게 된다. 즉 수정규칙의 수렴성은 초기 가설이 갖는 임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고, 고정성은 진리술어의 일정한 행태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 규칙이 초한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준다.

3. 진리 수정론 – 거짓말쟁이의 역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는 그 영역에 병리적 문장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병리적 문장을 포함하는 논의 영역에서도 수정규칙이 고정성과 수렴성을 갖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이 문장은 참이다”라는 진실말하기 문장(truth-teller sentence)을 보자. 이 문장은 완전하게 고정점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수정규칙을 적용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즉 이 문장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수정규칙을 적용하면 그 문장은 그 이후의 모든 수정 과정에서 참이고, 이 문장을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수정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문장은 모든 과정에서 거짓이 된다. 반면에 이 문장은 수렴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초기의 가설이 무엇인가에 따라 고정점(fixed point)이 다르기 때문이다. 굽타는 이러한 문장을 약하게 고정된(weakly stable) 문장으로 분류한다.

굽타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대해서는 고정성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수렴성은 만족시킴을 지적한다. 즉 수정 과정에서 그 문

장의 진리값은 계속해서 변하여 어느 고정점에서도 고정된 진리값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 문장을 수정 규칙에 적용할 때 얻게 되는 수정의 결과는 초기의 가설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하나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렴성은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장을 굽타는 역설적 문장이라고 부른다. 그는 역설적 문장과 약하게 고정된 문장을 구별하여 “진실말하기 문장과 같은 형태의 문장은 역설적 문장이 보여주는 변동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문장은 초기의 가설에 따라 고정된 진리값을 갖는다. 그러나 어떤 가설에서는 고정적으로 참이고 다른 가설에서는 고정적으로 거짓이다”¹⁰⁾라고 말한다. 그는 이 두 형태의 문장을 다음과 같은 정의한다.

하나의 문장이 논역 영역 D 에 속하는 어떤 임의의 집합 U 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참도 거짓도 아니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 문장은 M 에서 역설적이다.

하나의 문장이 논역 영역 D 에 속하는 모든 임의의 집합 U 에 대해서 M 에서 고정되어 있지만 절대적인(U 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진리값을 갖지는 않는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 문장은 M 에서 약하게 고정되어 있다.

굽타는 또 다른 종류의 병리적 문장이 있음을 주목한다. 즉 A) 어떤 U 에 대해서도 고정적으로 거짓이 아닌 문장, B) 어떤 U 에 대해서도 고정적으로 참이 아닌 문장, 그리고 C) 어떤 U 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참이고 다른 U 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거짓인

10) Gupta, “Truth and Paradox”, *Recent Essays on Truth and the Liar Paradox* (ed.) R. Martin (Oxford, Clarendon Press, 1984), 226쪽.

문장이 있다. 이러한 문장의 예를 보자.

- A) 이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 B) 이 문장은 참이고 동시에 거짓이다.
- C) 이 문장과 A)는 모두 참이다.

A)는 어떤 초기 가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참이지만 다른 가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어떤 초기 가설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거짓일 수는 없다. 즉 이 문장은 어떤 U에 대해서도 고정적으로 거짓일 수 없는 문장이다. B)는 어떤 초기 가설에 대해서는 거짓이지만 다른 가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어떤 초기의 가설에 대해서도 고정적으로 참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어떤 U에 대해서도 고정적으로 참일 수 없는 문장이다. 끝으로 C)는 어떤 초기 가설에서는 궁극적으로 참이고, 다른 가설에 대해서는 거짓이며, 또 다른 가설에 대해서는 결코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없다. 그러므로 C)는 U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참이고 U'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거짓일 수 있는 문장이다.

분명히 다섯 가지의 병리적 문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 종류의 문장은 진실말하기 문장과 같은 약하게 고정된 문장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장에 대해서는 의미론적 법칙과 직관적인 진리 개념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 문장이 T-문장으로 만들어질 때도 그것은 고정적으로 참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A), B), C)와 같은 문장들은 T-문장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문장들이 고정적으로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장들은 진리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들은 초기의 가설에 따라 아무튼 고정되기 때문에 그 문장들은 역설적 문장에 비하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런 의미에서 굽타는 역설적 문장을 다른 네 가지의 병리적 문장과 구별한다. 수정 규칙이 역설적 문장에 적용되면 그 문장의 외연의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증가, 변화될 뿐이다. 그래서 굽타는

거짓말쟁이 문장과 같은 형태의 문장의 진리값에 대한 판단은 비 고정적 특성을 갖는다. 진리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판단을 반대로 수정하게 한다. 수정 과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그 결과를 수정하여 우리에게 그전의 판단을 부여한다. 거짓말쟁이 문장과 관련한 일상적 논증에서 나타나는 순환적 패턴은 우리의 수정론에 의해서 설명된다¹¹⁾

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진리 수정론의 수정 규칙은 역설적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의 모든 문장의 진리 외연을 고정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당연히 진리 개념은 비정합적인지 않은가 그리고 그 개념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굽타는 이에 대해 진리 개념의 두드러진 비정합성은 그 개념의 일상적 사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그 개념이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점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존이 정직한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 질문에 간단히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도 대답할 수 있지만,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즉 “그는 평소에는 정직하지만 술에 취하면 정직하지 않다”든지 “그는 돈에 관한 한 정직하지만 대인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즉 존은 고정적으로 정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다’는 술어의 일상적 사용에 문제

11) 굽타의 위의 글, 229쪽.

가 없는 것처럼, 비록 어떤 문장들이 고정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할 지라도 진리 개념의 일상적 사용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므로 곱타는 진리 개념의 외전상의 비정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시도는 무익하며 헛될 뿐이라고 주장한다.¹²⁾

곱타의 진리 수정론은 순환적 개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미론적 구조가 있으며 진리 개념은 순환적이라는 두 가지 생각의 결합물이다. 첫 번째 생각은 순환적 개념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미론적 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순환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얻어졌고, 두 번째 생각은 T-문장은 진리 개념의 부분적 정의라는 타르스키의 제안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타르스키는 진리 개념의 순환성을 피하기 위해서 언어의 계층을 도입하지만, 곱타는 그 개념의 순환성을 설명하고 그 위에서 그의 진리론을 세운 것이다. 곱타에 따르면 역설의 발생은 일식의 발생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곱타는 “일식이 지구와 달의 공전의 자연스런 결과인 것처럼 역설은 진리 개념의 수정적 특성의 자연스런 결과”¹³⁾라고 말한다. 의미론적 역설이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은 진리 규칙은 진리 술어의 외연을 절대적으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의미론적 역설은 진리 개념의 성질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보다는 왜 그러한 역설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고, 그 개념의 일상적인 사용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12) 이런 점에서 곱타의 진리론은 키하라의 진리론과 비슷하다. 즉 치료의 시도는 질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13) 곱타와 벨납의 위의 책, 142-143쪽.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굽타가 진리 수정론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4. 진리 수정론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굽타는 문장의 유형을 일곱 가지로 나눈다. 즉 1) 고정적으로 참인 문장, 2) 고정적으로 거짓인 문장, 3) 약하게 고정된 문장, 4) 고정적으로 거짓이 아닌 문장, 5) 고정적으로 참이 아닌 문장, 6) U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참이고 U'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거짓인 문장, 그리고 7) 결코 고정되지 않는 문장이 그것이다. 다시 굽타는 1)과 2)는 정언적(categorical) 문장으로 3), 4), 5)와 6)은 타당한(valid) 문장으로 그리고 7)은 역설적 문장으로 분류한다. 굽타의 진리 수정론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이와 같은 문장의 분류가 진리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일상적 사용에 항상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S가 거짓말쟁이 문장을 가리킨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문장을 생각해 보자.

(7) S는 참이거나 S는 참이 아니다.

굽타의 진리 수정론에 따르면 (7)은 고정적으로 거짓이 아닌 문장, 즉 5)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타당한 문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7)의 선언지 모두 역설적 문장이지 타당한 문장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개의 역설적 문장의 선언적 결합이 타당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 직관에 반하는 것 아닌가? 굽타의 진리 수정론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진리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고전적 논리 법칙을 보존하면서

그 개념을 설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론이 받아들여진다면 굽타의 진리론은 성공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어렵지 않게 대답될 수 있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논리학의 동일률인 “ $p \rightarrow p$ ”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참이라고 말해 준다. 즉 $(\forall p)(p \rightarrow p)$ 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쟁이 문장의 병리성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은 그 문장에 대해서도 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문장이 참임을 안다.

(8) S가 참이라면 S는 참이다.

그런데 (8)은 조건적 정의(conditional disjunct)라는 추론 규칙에 의해서 (7)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8)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7)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7)을 거짓말쟁이 문장이 타당하거나 그것의 부정이 타당하다고 해석함으로써, 혹은 (7)을 거짓말쟁이 문장 S가 ‘...은 참이다’는 진리 술어의 외연에 속하거나 반외연(anti-extension)에 속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그러한 반론을 제기한 것처럼 보인다. 굽타에 따르면 (7)은 거짓말쟁이 문장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7)은 다음 문장들이 이해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9) 눈은 하얗거나 하얗지 않다.

(9)는 눈이 ‘하얗다’는 술어의 외연에 속하거나 반외연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리 수정론이 보여준 것처럼 거짓말쟁이 문장에서의 ‘참이다’라는 술어는 (9)에서의

‘하얏다’는 술어와 같은 일상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됨을 인식해야 한다. 진리 개념은 다른 일상적 개념이 적용 규칙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과는 달리 수정 규칙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7)은 단순히 한 언어의 논리적 특성의 한 면을 표현하고 있는 타당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 수정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그 이론이 모든 의미론적 역할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며, 진리 수정론이 만들어 내고 설명하지 못하는 역설적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생각해 보자.

(10) 이 문장은 정언적이 아니거나, 그것은 참이 아니다.

(10)이 정언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10)은 처음 선언지가 참이 되어 (10)은 참이 된다. 결국 (10)은 정언적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10)이 정언적이라고 가정하면, 처음 선언지가 거짓이고 그 문장이 정언적이기 때문에 나중의 선언지가 정언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10)은 정확히 거짓말쟁이의 문장과 같게 되어 (10)은 정언적이지 않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 수정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분명한 역설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곱타에 따르면 위의 논증은 옳지 않다. 즉 마치 거짓말쟁이 역설이 진리 개념의 본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듯이, (10)과 관련된 의미론적 역설은 정언성(categoricalness)이라는 개념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마치 의미론적으로 닫힌 언어 L에서 그 언어에서의 진리 술어(true in L)가 순환적인 것처럼 정언성이라는 개념을 그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언어 L에서는 그 언어에서의 정언적이라는 술어(categorical in L)는 순환적이다. 그러므로 L의 한 문장이 정언

적인가 아닌가는 물음은 오직 ‘L에서 정언적이다’는 술어의 외연에 대한 앞선 가정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저 (10)이 정언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묻는 것은 순환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무의미한 물음일 뿐이다. 결국 ‘정언적이다’는 술어의 외연도 ‘참이다’는 외연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고 가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뿐임을 기억한다면, (10)이 역설을 낳는다는 논증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굽타는 진리 수정론을 통해서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의미 있는 처방을 제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진리 개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즉 진리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직관을 보존하면서 진리술어의 외연을 결정하는 -물론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방법을 제공해 줌으로써 진리술어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다. 요컨대 거짓말쟁이 문장은 그 진리값이 고정적이지 않은데, 그것은 진리개념이 순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개념이 순환적이어서 거짓말쟁이 문장과 같은 병리적 문장이 나타나고 의미론적 역설이 발생한다고 그 개념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순환적 개념도 수정규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그 개념이 설명될 수 있고, 순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 그 규칙을 반복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개념의 보다 나은 외연을 점차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역설적 문장은 그 진리값이 결코 고정되지 않은 병리적 문장이기 때문에 어떤 수정 과정에서는 참으로 어떤 과정에서는

거짓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역설적 문장을 참이며 동시에 거짓이라고 생각하다든지, 혹은 참도 거짓도 아닌 진리값을 갖지 않은(truth-valueless) 문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역설적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의 고정된 진리값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문장의 진리값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이어야 한다. 즉 진리술어의 외연의 변화가 어떠하며,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거짓말쟁이 역설과 관련하여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물음들이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진리개념의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굽타의 진리 수정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진리 수정론이 의미론적 역설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굽타의 진리론의 정신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유의미의 영역은 그것이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범위가 더 넓고, 무의미한 개념으로 생각된 어떤 개념들도 실제로는 유의미하다. 개념의 우주는 실제로 풍부하다(The universe of concepts are rich indeed).¹⁴⁾

굽타는 정의라면 당연히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온 형식적 올바름(formal correctness)의 조건을 버리고, 실질적 적합성(material adequacy)의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순환적 정의의 행태를 설명함으로써 순환적 개념인 “진리”에 새로운 빛을 밝혀 주고, 나아가서 개념이라는 우주의 풍부함을 보여준 것이다.

14) 굽타와 벨납의 위의 책, 278쪽.

참고문헌

- 김영정, 「크립키의 진리론」, 『철학』 29 (1988).
- 송하석, 「진리, 일관된 개념인가: 거짓말쟁이 역설에 관한 타르스키와 설명」, 『여훈근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1996).
- Chihara, C., “The Semantic Paradoxes: A Diagnostic Investiga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88 (1979).
- Gupta, A., “Truth and Paradox”, In: *Recent Essays on Truth and the Liar Paradox*, (ed.) R. Martin,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_____ & N. Belnap. *The Revision Theory of Truth*,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4).
- Kripke, S., “Outline of A Theory of Truth”, *The Journal of Philosophy* 72 (1975).
- Song, Hasuk, *The Nature and the Logic of Truth*, Claremont Graduate School, 1994.
- Tarski, A., “The Semantic Conception of Truth”,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 (1944).
- Van Fraassen, B., “Proposition, Implication, and Self-reference”, *Journal of Philosophy* 65 (1968).
- Wittgenstein, L., *Remark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Cambridge, Mass.:The MIT Press (1983).